

제 8 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장려상 수상작

강릉의 조선시대 가옥을 통해 본 성리학적 가족질서의 실제

임효준

(법과대학 법학부)

* 이 글은 2008년 1학기 ‘한국사 속의 가족과 여성’ (담당교수:정요근) 강좌의 리포트이다.

차 례

I. 서론

II. 분석대상

III. 강릉의 조선시대 가옥과 성리학적 가족질서

1. 공간 구성과 '남녀유별'의 원리
2. 시대 변화에 따른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강화
 - (1) 공간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
 - (2) 시각적 측면에서의 변화

IV. 선교장에 나타난 성리학적 가족질서에 대한 반증

V. 결론 및 남은 과제

* 참고문헌

I. 서론

여말선초에 도입되기 시작한 성리학적 윤리관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세하며 우리나라의 가족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성리학과 함께 도입되기 시작한 주자가례와 종법제의 원리 등이 17C 이후 친영제와 장자중심의 재산상속 등을 정착시키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친족관념이라 할 수 있는 양측적 친속관계를 장자중심·남성중심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은 이러한 유교적 이념과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는데, ‘집은 작은 사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한 가정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집약해 놓은 것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부부유별’이라는 삼강오륜의 한 덕목과 ‘내외’라는 유교적 윤리에 의해 남녀의 생활영역을 분리시키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남녀불공식(男女不共食)’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 가옥구조의 전형에 따른 주택들은 “안채와 사랑채를 각각 따로 구분해 남녀를 격리시켰던 것”¹⁾이다.

그러나 과연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개개의 가정에까지 이러한 성리학적 가족질서 관념이 엄격하게, 그리고 널리 퍼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볼만 하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퍼진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 조선전기까지는 종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양측적 친속관계의 인식이 남아 있었다는 점, 친영제 역시 17C에 이르기까지는 사대부가에서조차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교적인 원리에 따라 집안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남성을 우위에 두는 인식도 철저히 지켜졌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경제권을 표상하는 ‘곳간 열쇠’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로, 즉, 여성을 중심으로 승계되었기에 ‘사회’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가정’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강릉 지역에 보존되고 있는 조선시대 가옥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성리학적인 가족질서를 뒷받침 해

1) 이배용 외,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pp. 164-165 참조. 물론 이는 가옥의 규모가 큰 양반 주택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소유했던 가옥의 경우에도 안방과 사랑방, 내측과 외측의 구분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는 또는 이를 반증하는 특성들을 고찰해 보려 한다. 조사 대상을 강릉 지역으로 한정지는 것은 유년시절 현장학습으로 수차례 답사한 가옥들이 많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조선 중·후기의 여러 가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그 비교분석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II. 분석대상

본문에서 분석할 대상이 되는 가옥은 최응현 고택, 이광로 가옥, 선교장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 세 가옥의 건립시기 및 그 내력, 그리고 주된 분석 자료가 될 가옥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응현 고택은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별당으로 가지고 있는 본가(本家) 건물이다. 세종 대의 문신 최치운의 아들인 최응현(1428~1507)이 지은 건물로 15C 후반에 완공되었다. 이후, 최응현의 집은 그의 사위인 이사온에게, 다시 이사온의 사위이자 사임당의 아버지인 신명화에게 차례로 물려졌으며, 이어 신명화의 넷째 딸이 낳은 아들인 권처균이 묘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분재 받았다.²⁾ 이 때부터 이 고택의 소유권은 안동 권씨 집안의 후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당인 몽룡실과 연결된 하나의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와 아래채, 사랑채가 ㄷ자 형태를 취하는 가옥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광로 가옥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인 허난설헌이 태어난 집터로 알려져 있으나, 건립 연대는 미상이다.³⁾ 그러나 허난설헌의 아버지인 허엽(1517~1580)이 위의 오죽헌에서 태어난 이이(1536~1584)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였다는 점⁴⁾과 그의 호인 ‘초당(草堂)’이 이 가옥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허엽이 한창 조정에서 활약하여 그 인지도가 높았던 시기에 이 가옥이 지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최응현 고택의 건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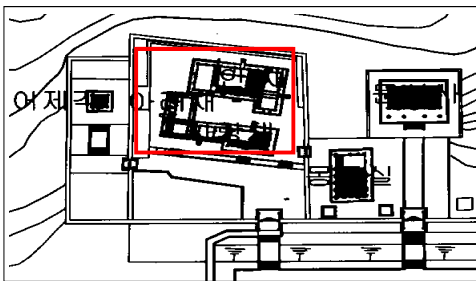
2) 대한건축사협회 편, 『민가건축 I』, 보성각, 2005, p. 12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3)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475-3 강릉 이광로 가옥 앞에 세워진 문화재 설명 표지판 참조.

4)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허엽은 1544년 진사의 자격으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대사간의 지위까지 올랐다가 1517년 병으로 사직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104권, 39년(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년) 9월 9일(을사) 6번째 기사 및 선조 5권, 4년(1571 신미 / 명 융경(隆慶) 5년) 11월 6일(갑자) 2번째 기사 참조.

기보다는 조금 늦은 16C 중후반쯤에 지어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공간채가 ㅁ자 배치를 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드나드는 문과 여성들이 드나드는 문이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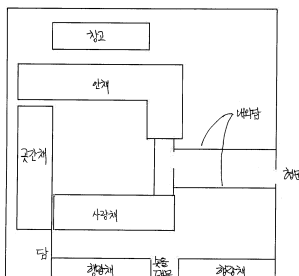
선교장은 17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조선 후기 200여 년에 걸쳐 지어진 저택이다. 세종의 형 효령대군의 10대손인 이내번이 1760년대에 강릉에 정착하여 지금의 안채를 창건하였고, 이내번의 손자인 이후가 1815년에 이르러 남주인 전용의 사랑채로서 기능을 하는 열화당을 지었다. 이후, 이내번의 6대손 이근우가 1920년에 안채의 일부를 헐어내고 현재의 ㄱ자 모양의 동별당을 앗힘으로써, 지금과 같은 선교장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사랑채 기능을 하는 ‘열화당’과 안채가 서별당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서별당과 안채 사이에도 담을 쌓아 가로막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채를 드나드는 문과 열화당을 드나드는 문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광로 가옥과는 달리 두 문이 일직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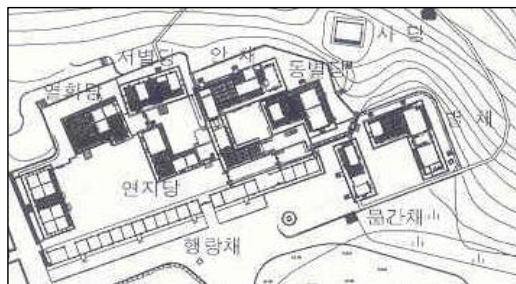
<그림 1> 최응현 고택의 가옥구조⁶⁾



<사진 1> 오죽헌 안내도 상의 최응현 고택



<그림 2> 이광로 가옥의 가옥구조



<그림 3> 선교장의 가옥구조⁷⁾

5) 이기서, 『강릉 선교장』, 열화당, 1996, p. 84.
6) 대한건축사협회 편, 앞의 책, p. 127에서 편집.
7) 위의 책, p. 141에서 편집.

Ⅲ. 강릉의 조선시대 가옥과 성리학적 가족질서

위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 지역에 현존하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건축물인 세 가옥은 혼란스러웠던 성리학의 도입 시기를 지나 성리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15C 후반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최응현 고택, 이광로 가옥, 선교장순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옥구조에도 당대를 지배했던 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위 세 가옥 모두에 성리학적 가족질서의 특성이 나타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가옥들을 서로 비교·대조하면서, ‘부부유별’로 대변되는 성리학적 가족질서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는 종법적·가부장적 가족질서가 개개의 가옥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공간 구성과 ‘남녀유별’의 원리

우선 세 가옥은 모두 성리학적인 관념에 따라 ‘남녀유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크기나 구조의 차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사랑채와 안채를 독립된 건물로 건축하여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성리학적 관념을 깊숙이 도입하고자 하였던 조선 초 왕조의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조선 3대 왕인 태종 때부터 “오부(五部)에 영(令)을 내리어 부부(夫婦)가 침실(寢室)을 따로 하게”⁸⁾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세 가옥 모두 양반 사대부가의 소유라는 점에 주목해 보면 이러한 성리학적인 가족질서는 더욱더 잘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우계연보보유」 ‘덕행’ 편에 기록돼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집 안에 거처할 적에 매일 아침 사당에 배알한 뒤에 물러 나와서 반드시 바깥사랑채에 거처하여, 일이 있지 않으면 안채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외가 엄격하여 규문(閨門)이 정돈되고 엄숙하였으므로 부인과 의상(衣裳)을 접하고 앉지 않았으며 앉는 자리를 항상 멀리 떨어지게 하였다.⁹⁾

8) 『조선왕조실록』 태종 5권, 「오부에 영을 내려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도록 하다」, 3년(1403 계미/명 영락(永樂) 1년) 5월 27일(계묘) 2번째 기사

9) 성혼, 『우계집』 우계연보보유(牛溪年譜補遺) 제1권, 「덕행(德行)」

『우계연보보유』는 윤증이 성혼을 기리기 위해 성혼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성혼의 저서 『우계집』에 추가한 저술이다.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성혼이 안채에 거의 출입을 하지 않았고 부인과 멀리 떨어져 앉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또 그러한 행동을 후대에 ‘덕행’이라고 평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남녀의 생활공간 구분은 당연하고 올바른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시대 변화에 따른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강화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II 장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세 가옥의 특성만으로도 세 가옥의 구조는 서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차이점들을 가옥의 공간 구조적 측면과 시각적 측면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대 순으로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강화’라는 측면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보려 한다.

(1) 공간 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

세 가옥의 공간 구조적인 측면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첫 번째 특징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일수록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이 더욱 엄격해져 ‘거주 공간’의 단절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5C 후반에 건립된 최응현 고택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사랑채와 안채가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물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래채가 이



<사진 2> 이광로 가옥 협문에서 바라본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내외담

들을 연결함으로써 단순히 ㄷ자 건물의 일부를 여성이, 다른 일부를 남성이 나누어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더구나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가로막는 아무런 장치 없이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공간구분을 제외하고는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면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해석까지 가

능케 한다. 그러나 16C 중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광로 가옥만 하더라도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구분은 엄격해 진다. 사랑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마당과 안채를 중심으로 하는 안마당 사이에 내외담을 쌓아서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서로의 공간에 대한 시선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교장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의 두 가옥의 배치와는 달리 열화당과 안채 사이에 긴 담을 쌓았을 뿐 아니라 두 공간을 거리상으로도 멀리 배치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완전히 단절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사료들과도 그 맥락이 통하는 사실이다.

- ① “그 상언(上言)을 살펴보면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무릇 재상(宰相)이나 조관(朝官)의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동떨어진 것이 많아서 노비(奴婢)의 하는 짓을 혹은 모두 알지 못하옵니다...”¹⁰⁾
- ② 지방의 고을에서는 반드시 호구수를 늘이려고 하여 그 폐단이 호구수를 누락시키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혹은 한 집안에서 호구를 나누게 하고 사랑채를 각기 따로 호적을 만들게 하는 등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¹¹⁾

①은 조선 연산군 때의 자료이다. ‘재상이나 조관’의 집인 경우에 안채와 사랑채가 동떨어진 것이 ‘많다’는 것을 향변의 근거로 드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까지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건축이 널리 행해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정조 대의 기록인 ②에서는 사랑채를 하나의 호적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만큼, 지방에서조차 사랑채가 안채와 엄격히 독립된 구조물로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옥의 공간 구조적 변화로 들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집안을 드나드는 ‘이동 공간’의 단절 역시 강화된다는 점이다. 최응현 고택의 경우 본가로 들어오는 대문은 오직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 하나의 문으로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가로막는 구조물도 하나 없고 마당도 나뉘지 않은 채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을 드나들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서로

10) 『조선왕조실록』 연산 27권, 「죄인 심미의 죄를 그 딸의 상소로 다시 논하다」, 3년(1497) 정사/명 홍치(弘治) 10년) 9월 22일(경신) 3번째 기사

11) 『조선왕조실록』, 「한성부 판윤 홍억이 호적을 개수하는데 따른 폐단을 아뢰다」, 정조 33권, 15년(1791) 신해/청 건륭(乾隆) 56년) 7월 16일(기축) 3번째 기사

마주치기 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광로 가옥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드나드는 문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집 정면에 위치한 솟을대문으로, 여성들은 우물 옆의 좁은 협문으로 출입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러 의도하지 않고서야 남성과 여성은 같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집안을 드나들며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선교장의 경우에서 더욱 심해짐을 알 수 있는데, 두 대문을 일직선상에 그것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설치함으로써 남녀가 같은 문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까지 관철시키고 있다.

(2) 시각적 측면에서의 변화

세 가옥의 시각적 측면의 변화로 들 수 있는 첫 번째 점은 사랑채의 크기가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1>의 최응현 고택이나 <그림 2>의 이광로 가옥의 경우에는 안채가 사랑채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교장의 경우에는 열화당, 서별당, 연지당이 위치해 있는 사랑마당이 안채가 위치해 있는 안마당의 면적보다 훨씬 넓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안채에 비해, 사랑채의 기능을 하는 건물은 열화당, 서별당, 동별당 3채에 이르는 것으로부터도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1819년 정약용이 간행한 『아언각비』의 다음 구절과도 통하는 것으로, 역시 남녀를 구별하면서 여성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강화와 관련 있는 것이라 하겠다.

옛날 풍속에는 內舍(안채)는 넓고 크고, 外舍(바깥채)는 낮고 작으며, 廊廡(낭무)와 다름이 없으므로(별다른 시설이 없으므로) 중국 舍廊(사랑)의 이름으로 모칭한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사랑채가 더욱 넓고 크므로 사랑이란 이름은 합당하지 않게 되었다.¹²⁾

‘사랑채’는 원래 크기도 작고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해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안채가 집안 깊숙이 자리 잡게 되어 외관상 눈에 잘 띄지 않게 된 점이 시각적 측면의 두 번째 변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최응현 고택의 경우 대문이

12) 정약용, 정해림 역주, 『아언각비·이담속찬』, 현대실학사, 2005, p. 140 참조.

안채와 사랑채의 측면 사이에 놓여 있어(〈그림 1〉 참조) 대문을 들어오면 안채와 사랑채가 동등한 비중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광로 가옥이나 선교장의 경우, 안채가 집안 뒤편으로 배치되고 대문의 정면에는 사랑채를 위치시킴으로써, 외관상 사랑채에 시선이 집중되



〈사진 3〉 선교장 전경¹⁴⁾

도록 하고 안채는 잘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선교장의 경우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는데, 선교장을 정면에서 조망해보면 열화당은 눈에 잘 들어오는 반면, 안채는 동별당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안채가 집안에서 내밀한 영역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을 억압하는 시각적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여자는 중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할 때에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게”¹³⁾ 한 관행이나 널뛰기의 유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선교장에 나타난 성리학적 가족질서에 대한 반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옥구조를 통해 최소한 공간 구조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강릉의 조선시대 가옥구조에도 성리학적인 가족질서가 확립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옥의 특징들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성리학적 가족질서가 가장 강조되었던 조선 후기에 지어진 선교장의 경우를 그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안채와 사랑채를 잇는 은밀한 통로가 있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화당과 안채의 경우, 거리상으로는 두 건물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13) 이배용 외, 앞의 책, pp. 164 참조.

14) 선교장을 멀리서 조망했을 때, 열화당의 차양과 동별당의 앞 구조물은 한 눈에 들어오는 반면, 안채는 지붕의 일부마저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만,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서별당’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던 건물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서별당은 집안의 남녀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서재로 활용하던 곳인데, 열화당, 서별당, 안채 세 건물은 마루를 통해 은밀히 연결돼 있었다고 전한다.¹⁵⁾ ‘부부유별’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경로로써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이어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조선시대 가옥들이 작은 사랑의 벽장문을 열면 안채의 건넌방으로 통한다든지, 며느리가 거주하는 건넌방 뒷면에 사랑채로 통하는 쪽문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연결해 주는 은밀한 비밀통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¹⁶⁾와 통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임진난 초에 공이 스스로 순국(殉國)할 것을 결단하고 매양 공청에서 물러나오면 사랑채에서 거처하면서 안방과 통행하는 문을 잠그고, “가사(家事)로써 내게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형과 누이와 더불어 서로 하직하였다.¹⁷⁾

안‘채’가 아닌 안‘방’과 통행하는 문이 사랑채에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남녀의 공간을 엄격히 구별해 놓았다 하더라도, 안으로는 두 공간의 실질적 연결을 도모하려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안채가 집안 깊숙이 배치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가옥의 중심에 위치한 셈이 되었다. 선교장을 바깥에서 보았을 때, 열화당은 집의 중심인 양 번듯하게 서 있는 반면, 안채는 다른 건물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위상이 크지 않은 건물인 듯 느껴진다. 그러나 <그림 3>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화당은 오히려 전체 가옥의 한 쪽 구석에 치우쳐져 있고 안채가 가옥구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안 다른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부각되는데, 안채는 서별당, 연지당, 동별당 등에 둘러싸여 있어 어느 공간으로든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 열화당의 경우는 서별당과 연지당, 작은 사랑채만이

15) 김봉렬, 앞의 책, p. 246 참조. 다만, 현재의 서별당은 한국 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96년 복원한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건물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16) 서윤영, 『집우집주』, pp. 129-130 참조.

17) 이궁익, 『연려실기술』 제18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선조조의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

가까이 있을 뿐, 동별당이나 사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멀리 돌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북 경주의 양동마을 '낙선당'에서의 안마당과 부엌의 위상도가 16C에서 19C로 갈수록 커진다는 건축학계의 연구결과¹⁸⁾로도 뒷받침되는 사실이다.

셋째, 안채를 허물고 동별당을 건축함으로써 사랑채와 안채를 다시 결합시키려는 모습이 보인다. 1920년 이근우가 건축한 동별당은 주인이 기거하면서 가족들의 회의장으로, 또 집안 친척들의 접대소로 사용하던 곳¹⁹⁾이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기존의 열화당과 마찬가지로 사랑채의 역할을 하던 공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동별당을 안채에 덧붙여 지었다는 점은 선교장이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엄격히 구분하려 했던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결합시키려 했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기반이 되는 부부유별의 원리에 배치되는 특성이라 하겠다.

V. 결론 및 남은 과제

지금까지 강릉지역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중·후기 건축 가옥들을 바탕으로 이들에 반영된 성리학적 가족질서와 시대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성리학적 가족질서에 반하는 특성들 또한 지적해 보았다. 우선 사랑채와 안채를 엄격히 구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세 가옥 모두에 '부부유별'과 '내외'라는 성리학적인 가족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주 공간과 이동 공간이 철저히 단절되는 모습을 보이고, 시각적인 측면에서 사랑채가 비대해짐과 동시에 안채가 집안 깊숙이 위치되어 바깥과의 교류를 제한받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경향이 가옥구조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

18) 최윤경,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호, 대한건축학회, 2003, pp. 84-86 참조. 특정 공간의 위상도는 그 공간으로부터 전체 공간 구조에 포함된 다른 모든 공간으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전이단계의 역을 기본으로 계산되는 개념으로, 특정 공간의 위상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공간으로부터 그 공간으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김봉렬, 앞의 책, p. 245.

나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었다는 점, 안채가 집안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 사랑채 기능을 하는 공간을 안채와 다시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질서가 가옥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가옥구조를 당대의 성리학적 가족 질서와 어떻게 연관 지어 파악해야 할까? 위에서 지적한 특성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가옥구조에 성리학적 가족 질서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즉, 공간 구조적이나 시각적인 특성들은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반면, 이에 반하는 부분들은 부부 생활이나 여성들의 활동 등 ‘실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의 가옥 문화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성리학적 가족질서를 반영하여 남녀의 공간을 엄격히 구분 짓고 여성의 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녀가 집안 생활을 함께 하는 기회도 많았고 여성들의 집안 내 지위도 그리 낮지 않았던 등 꼭 성리학적 가족질서를 따르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응현 고택이 상속되는 과정(Ⅱ장 참조)이나 선교장을 처음 건립한 이내번이 강릉에 정착하는 과정²⁰⁾을 통해서 발견되듯이, 당대 사람들의 의식에는 아직까지도 남귀여가혼의 전형과 양측적 친속관계의 유산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도 통한다.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부장 중심의 성리학적인 구조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일단 형식만이라도 따르고 보자는 심산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의 가정에서는 남녀가 구별 없이 지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부엌을 꼽는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제사 승계나 호주제 등 조선시대에 성립된 다른 종법적 가족질서의 요소들이 최근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집안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만 사람들의 인식이 급변하였다고 결론 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리학적 가족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에도 집안 내에서의 실질적인 생활에서만큼은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0) 위의 책, pp. 229-231 참조. 이내번의 부친 이주화는 원래 충주에 거주하던 토반층이었다. 이내번의 친모친은 이주화의 셋째 부인 안동 권씨였는데, 권 부인이 아들 이내번과 함께 강릉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충주 시대의 차별적 분위기를 피해 친정의 연고가 있는 강릉으로 옮겨 온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최응현 고택의 상속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강릉에는 안동 권씨 세력도 기반을 잡고 있었다.)

물론, 강릉이라는 지나치게 한정된 공간과 3채밖에 되지 않는 가옥을 통해 파악된 내용들이라 이러한 견해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된 최응현 고택의 경우 “조선 중기의 양반집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희귀한 예”²¹⁾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선교장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대부의 저택”²²⁾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검토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가족질서의 실재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도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폭넓고 정밀한 학계의 조사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자료]

- 김원룡,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김종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2』, 돌베개, 2006.
 대한건축사협회 편, 『민가건축 I』, 보성각, 2005.
 이기서, 『강릉 선교장』, 열화당, 1996.
 이배용 외,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정약용, 정해림 역주, 『아언각비·이담속찬』, 현대실학사, 2005.
 최윤경,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호, 대한건축학회, 2003.

[인터넷 검색자료]

- 강릉시청 홈페이지
 (<http://www.gntour.go.kr/tour/tourView.jsp?mcode=10105&tid=194>)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에서 검색)
 성 훈, 『우계집』
 이궁익, 『연려실기술』(이상,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에서 검색)

21) 김원룡,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p. 617.

22) 강릉시청 홈페이지 (<http://www.gntour.go.kr/tour/tourView.jsp?mcode=10105&tid=194>), 2008.6.12.

심사평

장 려 상

임 효 준 (법과대학 법학부)

강릉의 조선시대 가옥을 통해 본 성리학적 가족질서의 실제

조선시대에 지어진 강릉의 가옥 세 채를 비교하여 그 구조에서 성리학적 가족 질서의 형식과 실재를 찾는 흥미로운 리포트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옥들을 직접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나름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들어가며’ 부분에서 ‘남녀유별’과 ‘남존여비’로 집약되는 성리학적 가족 질서에 대해 주로 언급했는데 이 리포트는 가족질서와 가옥 구조를 연결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왜, 어떻게 연결 가능한지에 대해 좀 더 써준다면 전체적인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분석의 대상’에서 세 가옥의 구조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3장과 4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는 뒷부분을 읽다가 계속 앞쪽을 넘겨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군요. 앞부분의 그림을 뒤로 가져온다거나 간략한 그림을 뒤쪽에서 한 번 더 제시한다든가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선교장의 경우, 남녀가 드나드는 문이 일직선상에 위치한다는 설명이 〈그림 3〉만으로는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다.

3장의 분석에서 세 가옥의 비교는 크게 공간 구조적 측면과 시각적 측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 측면의 변화로 제시된 사랑채 크기 변화나 안채 배치 역시 결국은 공간 구조의 문제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소재목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공간의 연결성, 공간의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소재목이 전달성 면으로나 정확성 면으로나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4장은 선교장에 초점을 맞춰 남녀유별이나 남존여비에 반하는 특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언급된 동별당은 1920년대에 지어진 것인 만큼 성리학적 가족질서와 관련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성리학적 가족질서가 가장 강조되었던 시기에 지어진 선교장의 경우를 그 예로 들어’라는 4장 첫머리 설명과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첫 번째로 든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성은 최응현 고택이나 이광로 가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만약 나타난다면 함께 언급하는 편이 글쓴이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제목이나 소제목은 좀 더 간명하게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과 목차를 처음 보았을 때 조금 모호하고 복잡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3장의 경우 ‘조선시대 가옥에 반영된 남녀유별’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이를 다시 ‘거주 공간의 단절’, ‘이동 공간의 단절’, ‘안채와 사랑채의 관계’와 같은 부분으로 나눠준다면 전체 내용을 한결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원(기초교육원 인문학 글쓰기 강의교수)

